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최준규

- 한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 2021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렬

I. 들어가며

모든 고시생들은 다 다른 공부 방법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격생의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변주를 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합격 수기도 “저렇게 공부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I. 과목별 공부방법

1. 제1차시험 과목

(1) 헌법

기본 강의는 선동주 선생님의 강의만 처음에 1번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김유향 선생님의 OX 문제와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헌법의 경우 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 지문의 완벽한 숙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맞췄는지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지문을 알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맞은 문제라도 제대로 알지 못한 지문이 있다면 체크해놓고 반복 숙지했습니다.

어느 정도 반복 숙지가 끝난 후에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력을 점검하고 새로

운 지문도 공부했습니다. 시험 직전에 김유향 선생님의 최신 헌법 판례 강의를 들었습니다. 5급 공채에는 매년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입법고시에는 더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듣길 추천드립니다. 부속 법률을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5급 공채에는 부속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므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언어논리

언어논리는 항상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었습니다. 문제 난도와 상관없이 비슷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논리 파트만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논리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절반만 맞추자는 마인드로 시험을 봤습니다.

시간은 크게 3개의 시간대로 구분했습니다. 첫 시간대에는 1번부터 시작해서 40번까지 쪽 풀고 마킹까지 하는 시간대입니다. 독해는 1~2문제, 논리는 3~4문제 정도 넘긴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첫 시간대는 약 78~80분을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대는 넘긴 문제 중 비교적 풀만 한 문제 2~3문제를 푸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는 86분까지입니다. 나머지 4분 중 2분은 푼 문제 중에 긴가민가한 독해 문제를 다시 보았고, 나머지 2분 동안은 안 푼 문제를 각 번호당 마킹한 횟수를 세서 가장 적은 번호로 모두 찍었습니다.

(3) 자료해석

저는 자료해석을 가장 좋아했고 점수도 가장 잘 나온 과목입니다. 처음 기본강의를 수강하면서 실제 내가 체화할 수 있고 시험 때 쓸

수 있는 스킬이 무엇인지 선별했습니다. 신기한 스킬이라도 내가 활용하지 못할 스킬은 의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한 후에는 해당 스킬을 계속 연습해서 체화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도 일부러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자료해석은 문제 양치기가 통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을 1차 준비 기간에 꾸준히 풀면서 계산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차량 번호 4자리를 앞 두 자리와 뒤 두 자리를 각각 분자와 분모로 만들어서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계산해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번호가 1230이라면 앞 숫자인 12와 뒤 숫자인 30을 12/30로 만들어서 0.4라고 계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 알람 어플도 분수 계산을 해야 알람이 꺼지는 어플을 설치해서 계산 연습을 했습니다.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점수 기복이 꽤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과목 문제를 빨리 푸는 편이었는데 상황판단은 최대한 천천히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빠르게 푸는 것에 집중했다가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판단은 무조건 몇 문제는 찍겠다고 생각하고 임했습니다. 1~10번과 21~30번에서 각 1문제, 11~20번과 31~40번에서 각 2문제 총 6문제는 무조건 찍는다고 생각으로 풀었습니다. 특히 앞쪽 문제가 쉬운 경우에 퀴즈를 무리해서 풀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일치부합, 법조문 문제가 쉬울 때를 특히 주의했습니다.

(5) 제1차시험 전반

우선, 실전 모의고사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실전 모의고사에 응시할 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 점심 식사, 중간에 먹을 간식,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할 공부까지 모든 것을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실제 시험일에 했습니다. 각 과목별 운영법도 모의고사를 볼 때 실험해보면서 최선의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고, 리뷰도 명백한 실수에 의해 틀린 문제만 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문제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간에 간식먹는 시간, 화장실가는 타이밍, 산책을 얼마나 할지 등 시험일에 할 일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루틴을 짜놓으면 시험일에 생기는 불안함과 떨림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의 운영법도 정해놨었습니다. 몇 분까지 몇 번 문제를 풀지, 몇 문제를 무조건 안 풀고 넘길지, 특정 유형은 무조건 넘길지 등 운영법을 정해놓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 1차 문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1차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1차 문제에 지적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문에 포함된 내용이 자신의 지식에 비춰볼 때 옳은 지문인지 생각해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차 문제의 경우에는 출제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지에 의미없이 써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료해석과 상황판단에서는 ※, '단', 각주가 있는 경우 특히 신경써서 봤습니다. 해당 표시, 표현 옆에 적혀있는 내용에 함정이 있거나 문제풀이의 주요 단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각 과목별로 나만의 '딱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나우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각 과목별 운영법,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자주 실수하는 것 등을 A4 한 장에 적은 자료를 말합니다. 저는 '딱 한 장'을 과목별로 만들어서 연습 때와 실제 시험 전에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수를 이전보다 줄일 수 있었습니다.

2. 제2차시험 과목

(1) 행정법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고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실제 점수도 제일 잘 나왔습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까지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에서 암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법리와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고득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사분께 많은 질문을 하거나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수님이 쓰신 교과서를 읽는 것도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이해도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수업에서 교과서 밑줄자료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1000페이지가 넘는 교과서에 일일이 밑줄치

는 것은 비추합니다.

행정법은 2순환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답안쓰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해도와 암기 수준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박정훈 교수님이 쓰신 사례집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절판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중고서점이나 행사사랑 카페에서 구하실 수 있을겁니다. 사례집을 풀면서 문제에서 교수님이 요구하는 서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써야 하고 무엇을 쓸 필요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답안 스타디의 필요성이 가장 강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자분의 답안지를 보면서 사안 포섭 능력과 논리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암기장을 만드신다면 최소 2개 이상의 암기장을 섞어서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서로 다른 강사 2분의 암기장을 모두 펴놓고 제가 택하고 싶은 입장이나 서술이 간결하게 잘 되어 있는 암기장의 서술을 따와서 저만의 암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만의 암기장을 한번 만들고 나니 시험 직전에는 그것만 보면서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론의 분량도 제가 실제 답안에 쓸 만큼의 분량으로 줄여서 암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답안 구성에 있어서는 최대한 사안 포섭의 양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사안 포섭과 일반론 포함 나머지 서술의 비중을 5:5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판례는 중요 판례마다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서 그 키워드는 반드시 포함되고, 가능한 원문 그대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안 포섭을 할 때는 판례와 같은 입장으로 검토를 했다면 판례 문구와 검토에 쓴 문구를 그대로 포섭에서 활용했습니다. 판례와

다른 입장으로 검토를 했다면 결론 부분에서 “다만, ~입장을 취한 판례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서 ~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적어주어 판례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또 사안 포섭을 할 때 주어진 상황과 법조문을 모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지에 의미없이 써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문 옆에는 몇 번 문제에서 활용해야 할지 미리 적어놓아서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2) 경제학

제가 생각할 때 5급 공채 합격에 있어서 경제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단 기간에 붙거나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경제학을 잘한다는 점입니다. 경제학만큼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과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학 문제를 풀 때가 시간도 제일 잘 가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가 지겨울 때 경제학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경제학은 황종휴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거시경제학의 경우에는 이해와 직관을 중시하시는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념 정리는 다른 책들도 보시면서 보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제경제학 특강 수강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국제경제학 1순환 수강도 하면 좋겠지만, 특강만 잘 소화하면 5급 공채 경제학에 나오는 국제경제학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 기초를 제대로 잡지 않고 문제

풀이에 급급했기 때문에 경제학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최종합격할 올해에는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정독하고 모르는 부분은 계속 발췌독하면서 기초를 쌓아놓았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 점수와 크게 차이하지 않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반복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학 문제풀이를 할 때 최대한 답안을 보지 않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모르면 바로 답지를 보고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실전에서 조금만 비틀어서 문제가 나오면 풀지 못했습니다. 답지를 가려 놓고, 여러 방법을 활용해 푸는 노력을 하신 후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교수님 교과서나 기본서를 발췌독하면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지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를 때 봤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답안 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답안쓰기 연습을 경제학에서도 충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경제학 답안 스터디를 하면서 모르는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2시간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계속 연습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2019년까지는 제 전략과목이었지만 2020년에 점수가 급락한 이후에 2021년 다시 반등한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행정학에서는 문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보다 문제 의도 파악이 어렵기

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약 10년 치의 행입시 기출 문제의 문제 의도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토론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답안 구성에서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째, 영어 단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자 이름, 주요 개념(ex. 효율성, 형평성 등), 이론을 ‘한글(영문)’ 식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문단 구성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주장 - 주장의 근거 - 부연 설명(이론, 학자) - 사례 식으로 문단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문제 제시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모두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넷째, 답안에서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는 사례, 이론, 학자를 모두 써야 한다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조금 분량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해당 문제에 들어맞는 내용만 쓰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논문 등 자료의 경우에는 반복해서 볼 시간이 없다면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봐야 실제 답안에서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서 1번만 볼 바에는 보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경호 선생님의 논문만 여러 번 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자료 이외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을 봤습니다. 특히 입법고시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슈와 논점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에도 좋고 실제로 시험에도 관련 주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학 답안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1:1 답안특강이나 행정학 고득점자에게 답안 첨삭 과외를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올해 1:1 답안특강을 수강하면서 제 답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 수 있었고 점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점수만 주는 답안특강, 모의고사 응시보다 1번의 1:1 답안 첨삭이 훨씬 도움되었습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은 제 가장 큰 고민이었고 합격한 올해를 제외하고는 합격자 평균 점수에 크게 모자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합격자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는 받았지만 아직도 공부방법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공부방법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답안의 연결성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는 글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답안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자세하게 짜려고 노력했습니다. 답안 연습 과정에서 개요짜는 시간, 방식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최적의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답안 구성에서도 같은 문제 내에서는 연결성이 있는 답안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1-1에서 쓴 내용을 1-2와 1-3에서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연습해도 잘 되지 않았지만 다른 고득점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정치학 강사님을 계속 바꿔가면서 수강을 했습니다. 다시 공부한다면 강사 한 분을 꾸준히 따라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단행본을

읽으면서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여러 강사님을 바꿔 듣다보니 시간도 많이 낭비되었고 정치학의 체계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단행본은 시간이 되면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릴 단행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님들이 공저하신 '정치학의 이해'를 특히 추천드립니다. 정치학 체계를 잡기에 좋았고 저는 이 책을 기반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는 국제정치 학자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시면 '왈츠 이후', 국제정치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이해', 정치철학에 대해서는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 비교정치에서는 '현대정치의 동학'이 좋았습니다.

(5) 선택과목(정보체계론 → 지방행정론)

저는 2017~2019년 시험에서는 정보체계론을, 2020~2021년 시험에서는 지방행정론을 선택했습니다. 정보체계론의 경우, 매년 내용이 추가되고 시험 직전에 있는 3순환을 들어야 하므로 직전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할 시간이 적으며, 비교적 체계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답안 연습과 내용 숙지에 들이는 시간이 적고, 시간이 적더라도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방행정론의 단점은 정보체계론에 비해 내용이 많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내용이 많지만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두면 그것만 암기하면 되고, 비교적 체계가 잡혀있다는 점입니다.

지행은 서브노트 작성 또는 단권화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개념, 특징, 장단점을 쓰라는 문제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잘 해놓

은 자료를 마련한 후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항상 3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서 하나를 메인으로 하고 다른 기본서 1권과 교과서 1권을 같이 보면서 작성했습니다.

(6) 제2차시험 공부 전반

돌이켜봤을 때 2차 공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첫째, 이해가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의심과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기에 자신이 있는 분이라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깊이있는 답안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암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있어 이해하기도 전에 암기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2차 점수를 정체시키고 수험기간을 늘리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분량을 줄여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불의 타 문제는 고득점을 위해서는 맞춰야 하지만, 합격을 위해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의 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분량을 늘리다가 정작 빈출 주제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3순환 기간에 분량을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순환 기간은 그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보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IV. 기타 생활 전반

1. 운동

저는 3순환 기간에도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운동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공부를 밤

11시까지 한 후에 헬스장에 가서 1시간 2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사이클을 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헬스장을 가지 않고 도림천을 45분 정도씩 걸었습니다. 운동은 강추합니다. 처음에는 운동 때문에 더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슬슬 피곤함이 줄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날에는 도림천 걷는 시간을 더 늘려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2. 공부시간

절대적 공부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길고 집중한 시간이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채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순환이 아닌 기간에는 순수 공부시간(화장실 가는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 등을 뺀 공부만 한 시간)이 월~금은 10시간, 토요일은 8시간, 일요일은 3~4시간 정도 되도록 공부했습니다. 열품타 어플을 활용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월~토 11시간, 일요일 5시간 정도 해서 일주일에 70시간 정도 하고자 했습니다. 스태워치를 켜놓고 공부시간을 켜했습니다. 확실하게 공부시간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밤 9시까지 8시간 공부했으면 10시간을 채우고 싶어서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한 경험도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 한 나절은 쉬는 걸 추천드립니다. 5급 공채가 굉장히 호흡이 긴 시험이다 보니 단기간에 빠짝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쉬어야

공부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 쉬시면서 체력도 보충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토요일에는 평소보다 1~2시간 일찍 공부를 마무리하고, 일요일에는 오후 늦게 또는 저녁부터 공부했습니다.

3. 생활습관

수면 시간은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6시간 30분 정도 자면 공부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 3순환 기간에도 6시간 30분 정도 자고자 했습니다. 너무 적게 자면 공부하다가 졸고 집중력도 떨어져 오히려 손해입니다. 저는 야행성 성향이 매우 강해서 3순환 아닐 때는 9시30분, 3순환 기간에는 9시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신 밤 11시 또는 3순환 기간에는 새벽 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시간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잠이 많아 저는 출석체크 스테디를 항상 했습니다. 벌금이 썬 스테디를 조직해서 진행함으로써 아침에 일어날 유인을 추가했습니다. 어플 중에 특정 장소의 사진을 찍어야

알람이 꺼지는 어플을 깔아서 화장실 세면대를 찍어야 알람이 꺼지도록 설정했습니다. 밤에 핸드폰을 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정한 시간보다 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 벌금을 내는 스테디에 참여해서 밤에 핸드폰 보다가 늦게 자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V. 마무리하며

이 시험이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공부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붙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2차가 끝나고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면서 체감한 것인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 혹여나 합격하지 못해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노력의 결실이 결국에는 옵니다. 제 수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